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열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창조절기로 지킵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이예슬 자매의 교육부 부서지기 선임입니다.
4. 10월부터 매달 넷째 주 예배 직후에 교회에서 목장모임이 진행됩니다. 성도의 교제 대신 목장별로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8일 : 천지은 1일 : 배은아 2일 : 장하진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양하나 / 설교번역: 위충일
- 10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추수감사 공동식사 : 11월 16일 주일 예배 후

*성서일과 Lectionary (제 39주)

암 6:1a, 4-7 / 시 146 / 딤후 6:6-19 / 눅 16:19-31

교회세운날 2017.6.11

25-39 9월 28일 (성령강림 후 열여섯 번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딘전 6:11-12a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박성조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5장 18-27절 ———— 인도자

설교 ———— 예수 사랑의 증거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청춘, 그 푸르름이여!

지난 주말에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의 청년부 <개강 수련회>에 초청을 받아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저녁의 총 세 번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뉴스들만 들어 오던 터라 청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절반 정도 되어 보이고 직장인들도 적잖았습니다. 청년들이 이민자로서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은 역시 신분의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졸업 후에 이곳에 남을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기본이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미국에 남아 일할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트럼프 정부에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며 청년들 안의 적잖은 요동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저희 교회 청년들이 오버랩 됐습니다. 말씀이후 기도시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여서 일기장 맨 앞에 적어두곤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젊음은 비극에 물들지 않은 영혼이다. 그래서 청춘(靑春)은 두려워 하지 않는다. 청춘(靑春)은 비극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비극의 한 가운데로 자신을 던진다.” 잿빛 비극에 물들지 않고 푸르름 본연의 색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청춘의 본령이란 말이겠지요. 청춘은 비극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잿빛 비극에 푸르름을 더하기 위해 자신을 투신하는 용기입니다. 이런 푸르름의 생명력과 객기가 있는 이들을 나이 불문하고 청춘이라 부릅니다. 죽을 때까지 청춘이고 싶다는 다짐을 해 보곤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국이라더라도 청춘이기에 청년들이 잘 이겨내리라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분과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부디 그들이 불안한 현실과 어두운 미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가길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갔는데 오히려 제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 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언제부턴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기도하며 청년 목장을 따로 만들어 케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청년목장의 목장지기로서 섬기기로 하고 청년목장을 결성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청년목장이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당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 안에서 부서진 목장이든 영적인 성장을 위해 따로 모이고 나누는 것에 대한 필요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한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기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작이고 미약한 첫 발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청년 목장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